

Magdalena Abakanowicz의 〈Abakan rouge〉 조형분석연구*

김 언 배**

- I.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의배경
 -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II. 아바카노비치(M. Abakanowicz)의 예술세계
 - 1. 아바카노비치의 생애와 작품세계
 - 2. 아바칸루즈(Abakan Rouge, 1969)
- III. 조형적 구조분석과 검증절차
 - 1. 예시작품의 이미지
 - 2. 상세 분석표(詳細分析表: PARTICULAR ANALYSIS TABLE)
- IV. 결론
 - 붙임 : 연구조성의 key표

I. 서론

1. 연구 목적

본고는 현대섬유예술가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의 작품〈아바칸 루즈 1969〉을 형식 구조적 측면에서 조형성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 논문은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섬유디자인 전공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학 박사 수료.

2. 연구의 배경

시각적 표현(Visual expression)은 어떠한 규칙(rule)에 의해 메시지를 발하고 의미를 생산하는가? 그러한 규칙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면 이를 분석해 낼 수 있을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예술학이 할 수 있는 해답이란 너무도 미미하여 문의 표현(文의 表現, sentential expression)이 '문법(grammar)'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하고 의미를 생산한다는 것을 용인함은 물론 문의 표현에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분석하는 일을 학문의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언어학(言語學, Linguistics)의 일백년 전통에 비하자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에 놓여있다. 시표현의 분석 수준이란 이제 겨우 회의주의를 극복하려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¹⁾ 시표현의 분석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은 홍익대의 김복영 교수를 중심으로 한 예술학 연구자들에 의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P-언어와 분석 기표학(P-言語와 分析 記表學, P-Language & Analytic Logonomics)이란 이름으로 학문적 체계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文)을 분석하는 언어학과 연장선상에서 보았을 때, 시표현의 분석이 해야 할 것은 시표현에 존재하는 '계열 현상(系列現象, Paradigmatic appearances)'과 '결합현상(結合現象, Syntagmatic appearances)'을 차별화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²⁾ 시표현의 의미 연구는 기표의 자질들이 누리는 표상(지시)과 현전(기 의)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조건들(규칙)을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조건들(규칙)을 다루기 위해서는 일체의 시표현을 계열현상(부분)과 결합현상(전체)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표학(記表學, logonomics)', 더 자세히는 '분석 기표학(分析 記表學, analytic logonomics)은 전적으로 이를 위해서 요구된다.³⁾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P-언어의 원리는 형태역학의 원리 (Morphodynamic principles)라고 할 수 있

1) 김복영, 「P-언어와 분석 기표학 (P-Language & Analytic Logonomics.)」,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예술학과 하계강좌 자료, 2004. p. 1.

2) 앞의 글, p. 1.

3) 앞의 글, p. 3.

다. 이는 형태심리학 이후 인지과학에 이르기까지 통용되어온 전체성의 원리(Principles of Totality)와 연합의 원리(Principles of Connection)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 원리를 정의해서, '하나의 개열체가 생산되고 기표로 자리매김 되는 것은 전체의 장(field)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기로 하자. 형태역학의 원리에 의하면, 일체의 계열체들의 기표자질은 전체의 장(場, field)안에서 '역학적으로(dynamically)' 발생하고 구조화 된다.

그것들은, 단순한 경우에는, 한 개의 장안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한 개 이상, 다수의 장을 경유해서 동시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우와 복잡한 경우를 막론하고, 계열체들을 생성하는 형태역학의 원리에 입각한 수리절차(mathematical working processes)를 구성하는 일이다.⁴⁾ 이러한 P-언어의 원리와 구성을 받아들여 분석을 검토하였으나 이는 P-언어와 분석 기표학이란 이름으로 체계화하고 연산절차를 확정하기 이전의 예비적 연구수행과정을 기술·정리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하거니와 II 장에서는 아바카노비치의 생애와 예술을 살피고, III 장에서는 조형적 구조분석과 검증절차를 수행 할 것이다. 특히 이 III 장에서는 이미지의 구조를 해명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1. 위치정향 γ^{-1} , μ^{-1} (locus constant)
2. 이미지 개체정향과 의미치
(Image Individual Constant : d, s, k, b, and semantic value)
3. 계열(系列, paradigm)과 결합(結合, syntagma)관계

II . 아바카노비치(M.Abakanowicz)의 예술세계

1. 아바카노비치의 생애와 작품세계

19세기초 아시아 대륙에서는 강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몽고족이 서서히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하여 드디어는 1206년, 징기스칸이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부 유럽을 굴복시켰다. 그 몽고군의 지휘관중 Houlagou-Kan은 persia와

4) 앞의 글, p. 4.

caucasus를 정복한 후 강하고 부유한 자신의 국가를 세웠다. 그 국가는 정복자에 의해 지배되었고, 그가 사망한 후, 그의 큰형이던 Abaka-Khan이 권력을 잡았으며 몽고의회인 쿠리데이 제국은 그에게 중국인 왕관을 수여하였다. 그 후 7세기가 흘러 그 이름은 재래의 몽고로 바뀌었으나 그 강력했던 왕족은 러시아 혁명동안 멸망되었다. 그때 두 소년은 전란에서 살아남아 어머니의 고향인 폴란드로 넘어왔는데, 큰형은 콘스탄틴이라고 불리어졌으며, 그가 바로 Abakanowicz의 아버지이다.⁵⁾

Abakanowicz는 1930년 폴란드의 Falenty에서 마을의 지주이자 귀족출신인 어머니와 몽고계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녀의 출생은 어머니에게 커다란 실망을 가져다 주었으며 Abakanowicz가 이러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소년이기를 갈망하며 성장하게 된다.⁶⁾ 그녀의 어린시절은 동년배의 친구가 없어 외롭게 보였는데, 시골의 생활을 통해 환상적이고 신비한 자연을 보고, 느끼고 발견하면서 어린 날의 자아를 성숙시켜 갔다. 그녀가 6세 되던 해 그녀에게는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나날이었으며 어머니는 결국 그녀에게 굳이 공부를 강요하지 않게 되었다.⁷⁾ 공부를 포기한 후 디프테리아를 앓으면서 정신적인 성숙의 계기가 되었고, 주변의 사물에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고자 나무에다 칼로 얼굴을 새기기도 하고 점토로 사람의 옆모습을 만들기도 하며 그러한 행위에 몰두해 어린시절을 보낸다.⁸⁾

Abakanowicz가 9세 되던 해인 1939년 가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평온했던 그녀의 집은 군인들의 진지가 되었다. 그러던 1943년 어느 날 술에 취한 독일군이 난사한 총탄에 의해 그녀의 어머니는 오른쪽 팔이 잘리고 왼손에는 중상을 입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간호하면서 장래에 간호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잠시였다. 1년 후인 1944년,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그녀의 가족은 바르샤바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이 도착하던 때에 바르샤바 시민봉기로 시민 24만명이 사망하는 대폭동이 일어났다.⁹⁾ 부상자들이 학교 건물 등 모든 시설에 가득 차게 되었으며 수용시설의 미비와 의사부족으로 매일 죽어가는 시민의 숫자는 늘어만 갔다. 그때 아바카노비치는 자원봉사대로 그곳에 가

5) Mary Jin Jacob, *Abakanowicz* (New York: Abbeville press, 1982), p. 23.

6) 위의 책, p. 28.

7) 위의 책, p. 38.

8) 위의 책, p. 40.

9) 형성출판사 편집부, 「폴란드」 p. 238.

서 일하며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목격했다.¹⁰⁾ 그리고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깊은 번뇌와 회의를 느끼게 된다. 이곳에서 그녀는 지역예비군으로 싸우다 부상당한 소년 Jurek-Godlewski와 만난다. “지금도 그 소년의 손과 얼굴을 또렷히 기억하여 그릴 수 있다.”고 진술하듯 그녀의 생애에 있어서 처음으로 느꼈던 이성이었으나 포탄에 맞은 다리로 인하여 결국 죽고 만다. 그 후 그녀는 폴란드의 한 여학교에서 이방인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간신히 학업을 마친 뒤 1950년 바르샤바의 Academy Fine Arts school에 입학했다.¹¹⁾

1954년 Academy를 졸업하고 밀라노·웍의 한 공장에서 넥타이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으나 그 일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또한 그녀는 큰 규모를 원했으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Academy의 교수에게 찾아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겨우 승낙을 얻어 커다란 방을 제공 받을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55년 세레리아¹²⁾ 주관의 공모전에 출품하여 상을 받았으나 그 공모전의 성격도 직물 디자인을 위한 것이었다. 1965년 Poznan Fine Art 대학으로부터 교수 초빙을 받고, 수락하는데까지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으로 상당한 고심을 했다. 사실 그는 교직을 싫어했으며, 학생들에 대한 일련의 공포감과 더불어 짜깁기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직이 그녀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학생들에게서 보고, 느끼고, 질문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케 하며, 실습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병원, 고아원, 맹인 center, 환자실 등의 지역에서 실제로 접촉하고 느낄 수 있게 하였다. Abakanowicz는 젊은이들과의 접촉을 좋아해, 그들의 작품과 생활에 관계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재료인 섬유의 실용적으로 이용되는 측면보다 신비한 예술 표현의 매개물로서의 가능성을 주장했고, 삼(Sisal)과 다른 섬유를 기술적 형태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이용하였다. 수세기에 걸쳐서 수공예에 의존하여 왔던 짜는 물질과 기술을 이용하여 대담한 상(Bold)을 형상화시켰다. 이것은 다른 현대예술가의 그것과 비교할 때 보다 섬유에 대한 Abakanowicz의 시도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실로 국제적인 섬유예술의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¹³⁾

10) Potrait×20 S (Abakanowicz가 1977년에 집필한 자서전적 수필집)

11) Galerie Alice Panli, 「Abakanowicz」 one-person Exhibitions (cat.) 1981.

12) 이 공모전은 직물 pattern Design 응모전이며 그녀가 금상을 수상함.

13) Jmes Fitzsimmons, 「Art International」 V · XII /8, 1975. Oct, 15, p. 30.

Academy에서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짜집기 기술만을 가르쳐준 반면 Abakanowicz의 예술적 발전은 대부분이 Constructivism 화가인 「헨리스타제위스키」(Henryh Stazewski)주위에 쏠려있던 전위파 예술가들과의 접촉에서 자극받은바 크다. 그들 중 2명의 화가는 Maria Ewa Lunkiewicz와 Roman Owidzki로서 이들과는 1957년의 첫 해외나들이에서 만났으며, 이들은 그녀에게 지원과 용기가 서방세계에 대한 소개 등 다각적인면서도 중요한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Maria와의 우정은 각별한 것이어서 1976년 Maria의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서로의 작품세계에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어쨌든 단적으로 그녀의 예술이 어떤 issue나 이념에 근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그녀는 법칙과 규정을 싫어하였으며 그것을 상상력에 대한 적이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¹⁴⁾ 재료에 있어서도 시각표현에 가능한 모든 재료를 Weaving에 적용시켰다. 삼, 말총, 실금속, 털, 모피, 마 등 이러한 것들은 그녀의 상상력에 알맞은 재료들으로써 거의 자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유기체가 소유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적인 물질이다. 이 재료의 호전적인 성질은 작품과 관객 사이에 촉각적인 관계를 다시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부조의 면을 형성시킬 것인가, 구상된 표면이 부풀어 터질 수 있도록 할까 그리하여 부스러진 곳을 통해 신비스럽고 깊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끝없이 고민했다.

2. 아바칸 루즈(Abakan Rouge, 1969)

아바카노비치의 작품세계는 5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구분	시기	개요
제 1기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형성기: 초기작업 출발 · 탄생과 성장의 개인사 : 동유럽의 불안정한 시대배경 · 종이나 캔버스에 과슈와 수채지지대의 직조와 스티치 · 서구추상표현주의 영향 · 자연과 전생(독일의 폴란드 침공)

14) 위의 책, p. 32. 그녀는 상상력을 무척 중시하여 인간의 상상력을 방해 또는 억제하는 행위는 모든 인간의 적이라고 말한다.

구분	시기	개요
제 2기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바칸(Abakan)제작시기 · 직조를 제작표현 수단으로 확립 · 다수 아바칸의 설치미술전개 · 탈 장르 경향체험 〈바퀴와 로프: Wheel and Rope〉 · 직조의 거대함 · 신타래의 감김과 풀림 · 섬유미술의 조각적 형태와 재료적 특성 조합
제 3기	1970년대 ~1980년대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바칸'의 해체 및 개조기 · 인간의 신체일부를 극대화하여 객관적 대상으로 제기 〈두상 Heads〉, 〈좌상 Seated Figures〉 〈등 Backs〉, 〈발생학 Embryology〉
제 4기	1980년대 전반 ~1980년대 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기와 3기의 복합기 · 환경설치형태의 강조 〈얼굴 Faces〉, 〈몸 Bodies〉 아바칸과 개조의 복합체 〈Abakans + Alternations〉 〈카타르시스〉〈육화〉〈네제브〉
제 5기	199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바칸'의 새로운 변형기

〈표 1〉 아바카노비치의 작품세계

본고에서 연구자가 분석하고자하는 텍스트는 1969년작 아바칸 루즈(Abakan rouge)로서 13' × 13' × 11*'의 입체 설치 작품이며 붉은색 모노톤의 사이잘(sisal)로 직조된 것이다. 현재 스톡홀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이 제작된 시기는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 2기로서 '새로움의 탐구'가 전개되던 시기이다. Abakans는 M.Abakanowicz의 초기 섬유조각에 대한 통상적인 이름이다.¹⁵⁾ 다시 말해서 「벽과 마루사이의 어떤곳에서 개발한 새로운 장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칭은 1964년 전람회(Group展)¹⁶⁾ 당시 Hanna ptaszkowska가 건축가

15) 이것은 그녀의 동료들이 붙여준 것으로 그녀의 이름 첫 자를 딴 것이다.

16) 주로 조각가들의 전시회, 그녀는 몇몇 화가들과 함께 초대됐다.

협회 모임인 Architects Association club에서 회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바르샤바(Warsaw)의 main Exhibition hall인 Zacheta에서 전시중이던 Abakanowicz의 작품에 대해 명명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그 후 Abakans는 섬유부조를 가리키는 것, 3차원의 자유로운 매어달림(hanging)으로써 예술가와 예술을 그리고 관람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화시키는 작품이 되었다.

아바칸은 러시아 연방 중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구에 있는 자치공화국 하카시아(khakasiya)의 수도로서 아바칸 강이 예니세이 강과 합류하는 지점근처, 아바칸 강의 왼쪽 기슭에 있다. 아바카노비치가 자신의 작업을 '아바칸'이라 칭하면서 궁극에 찾고자한 모든 작업의 공통적 요소이자 모티프의 근원은 자신을 있게 했던 선조의 혈통으로 환원된다. '아바칸'은 그녀의 선조이자 폴란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그녀의 삶이 담긴 또 다른 아바칸인데, 본래 그녀 부계의 선조인 징기스칸의 한 종족을 일컫는 명칭이라고도 한다. Abakanowicz의 작품 중 첫째로 중요한 점이 바로 이 Abakans Group이다. 거대하고 허름하게 짜여진 이것은 둥글고 정방형의 추상적인 형태, 넓게 찢어져 꿰매고 접혀져서 재료가 밀려나오게 감싸졌다. 이러한 조각(pieces)은 벽으로부터 유리되어 조각처럼 자유로이 걸려있는 3차원의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이로써 Abakans는 직물조각으로 인정받았는데, 실상 그것은 의복과 보호하는 직물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그것들은 내면과 외면이란 이중구조를 형성하면서 새로워지기 시작한다.

Abakans Group 内の 모든 작품들은 모두 그 규모가 거대하다. 작품의 내면에서는 재료와의 새로운 관계와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관계를, 그리고 표면이 새롭고 신비롭다. 또한 Abakan은 도시와 인간을 공격해 오는 기술문명에 대한 반명제로써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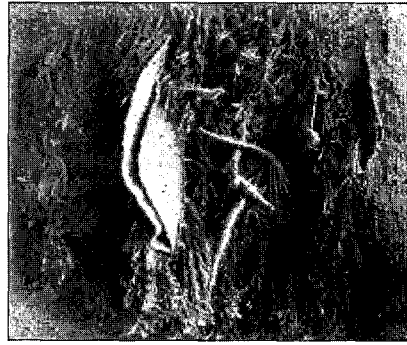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유기적 형태가 구축되는 직조 작품들은 몸의 확장된 이미지로서 직접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연상하게 한다. 자신과 자신의 작업의 출발로서 모든 재료적인 것 특히 섬유에 매혹당하면서 아바칸으로 확대시킨다. 이 생소한 3차원 직조 형태는 펼쳐진 여성의 육체로 보일 수 있는 자유롭고 상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림 1, 2, 3,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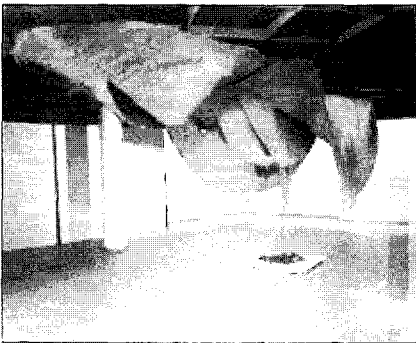
Abakanowicz의 Abakan series



〈그림 1〉 Exhibition on the Leba Dunes in Poland, Magda Abakanowicz was anxious to observe the action of her work in open air. This became the environment for the film "Abakany", made in 1969.



〈그림 2〉 ABAKAN 27 1967
573/4"×713/4" tapestry weave
sisal: black and brown
Collection: Jack Lenor Larsen, New York
Shown in "wall hangings"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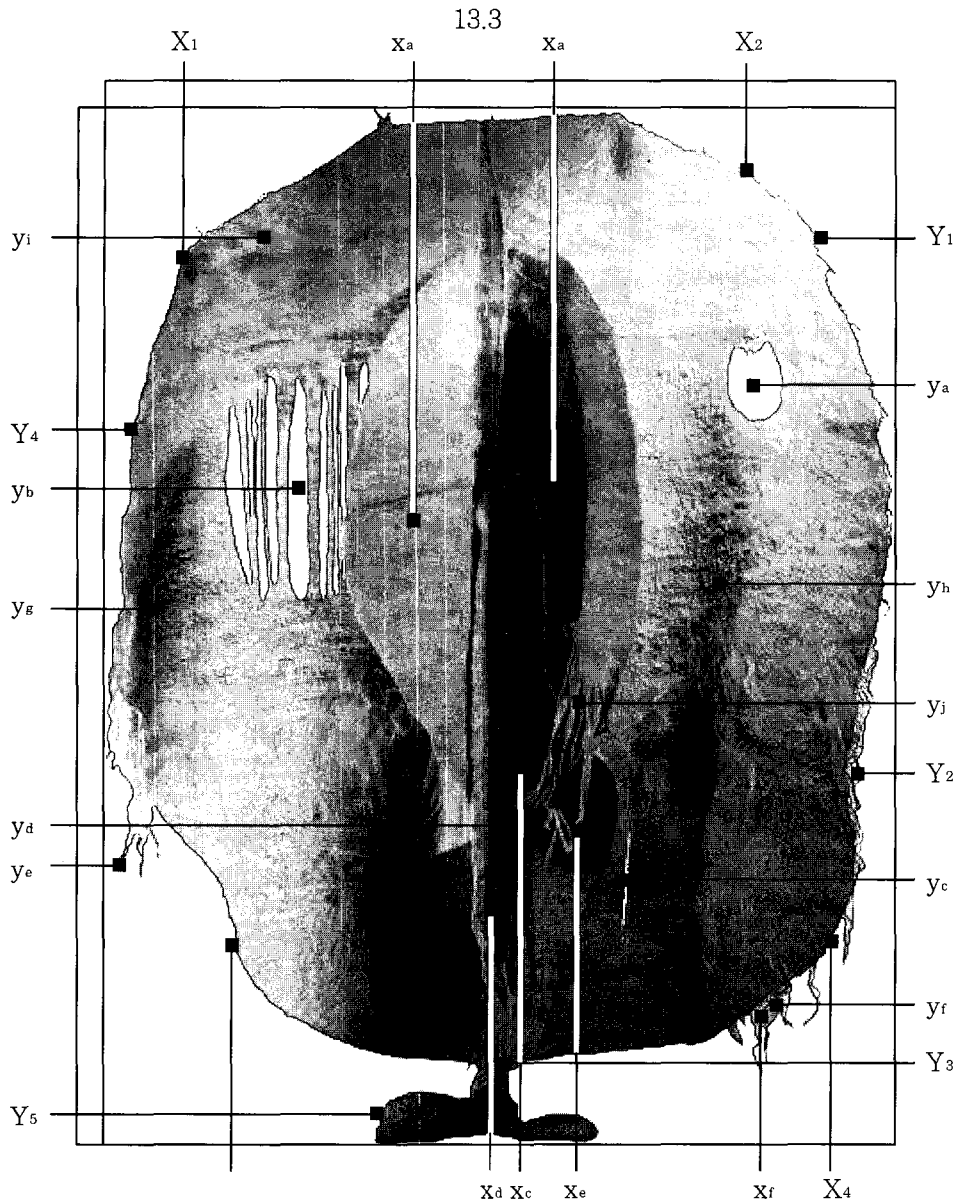
〈그림 3〉 ENVIRONMENT. SITUATION 4
ABAKAN ROUGE II (detail)
An object, orange in color, is placed horizontally over the head of the viewer. This is a temporary phase of the object, since it is not certain if the dangling rope has been extracted out of the object, or if it is meant to be taken into the object.



〈그림 4〉 ABAKAN JAUNE 1967-68
12' 9" × 9' 9" × 4' 10"
shaped tapestry with crochet
sisal: yellow~orange
Collectio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York.
Shown in "wall hangings"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69

Ⅲ. 조형적 구조분석과 검증절차

1. 예시작품의 이미지



〈그림 5〉 ABAKAN ROUGE 1969
13' × 13' × 11½'
shaped tapestry
sisal: red
Collection : National museum, Stockholm

2. 상세 분석표(詳細分析表: PARTICULAR ANALYSIS TABLE)

1. SCALE = 13.3×17.5(cm)

2. $R^{\pm 1}$: 0.76, 1.3157

3. 구조 : $\gamma^{-1} C^{-1} \mu^{-1}$

X : 1 = 0.0977, 0.9023, 0.1763 = $\sqrt{\sqrt{2^{-1}}}$

2 = 0.8195, 0.2138, 0.3362 = $\sqrt{\sqrt{\emptyset^{-1}}}$

3 = 0.1579, 0.8421, 0.2659 = $\sqrt{\sqrt{2^{-1}}}$

4 = 0.9023, 0.0830, 0.1522 = $\sqrt{\sqrt{2^{-1}}}$

Y : 1 = 0.8629, 0.1371, 0.2676 = $\sqrt{\sqrt{2^{-1}}}$

2 = 0.3657, 0.6343, 0.4571 = $\sqrt{8^{-1}}$

3 = 0.0743, 0.9257, 0.1376 = $\sqrt{\sqrt{2^{-1}}}$

4 = 0.6914, 0.3086, 0.4142 = $\sqrt{2^{-1}}$

5 = 0.0343, 0.9657, 0.0662 = $\sqrt{\sqrt{\emptyset^{-1}}}$

4. 기본구조 = {0.1763, 0.3362, 0.2659, 0.1522, 0.2676, 0.4571,
0.1376, 0.4142, 0.066}

⇒ 비조성 이산구조

5. 이미지구조 (의미요소의 구조)

5-1. 위치정향 γ^{-1} , M^{-1} (Locus Constant)

x : a=0.3910, 0.4831 = $\sqrt{6^{-1}}$

b=0.5414, 0.4880 = $\sqrt{3^{-1}}$

c=0.5338, 0.5000 = $\sqrt{4^{-1}}$: $\mu=0.4904^{\mu-1}$

y : a=0.7371, 0.4142 = $\sqrt{2^{-1}}$

b=0.6171, 0.4722 = \emptyset^{-1}

c=0.2571, 0.3831 = $\sqrt{15^{-1}}$: $\mu=0.4232^{\mu-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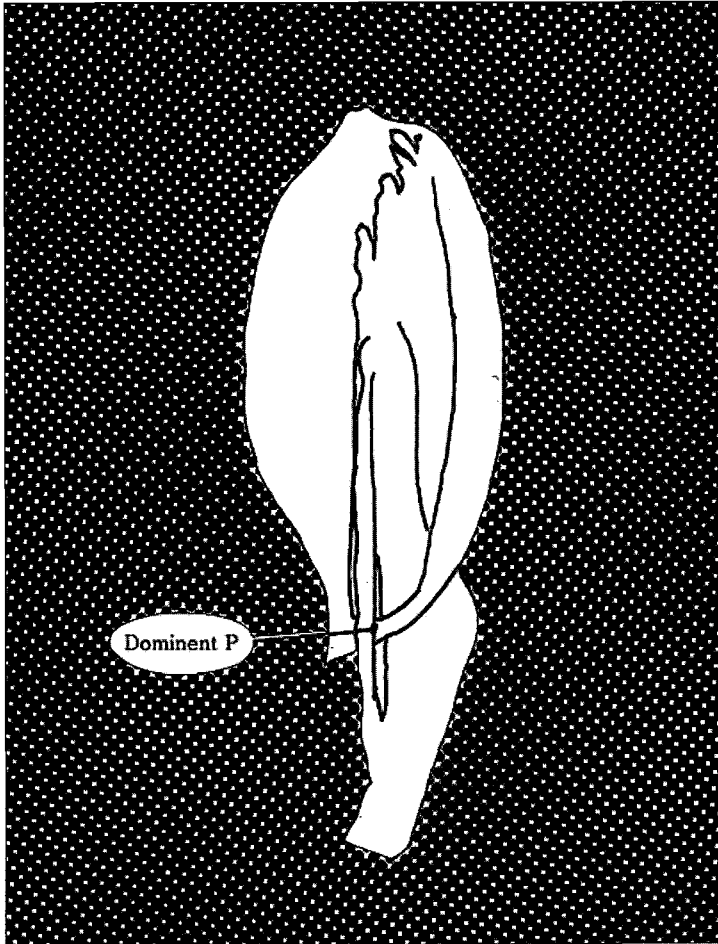
[d] 집단P는 꽃이 피어난 상태의 열린구조(open structure) 혹은 작품명에서 의인화되듯이 열린 입내지 입술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직접적으로는 여성 생식기를 통하여 작가의 성담론을 발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아바카노비치가 지니고 있던 성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유년시절 어머니에 의해 은연중 형성된 절망과 부정적 가치로서의 여성이었다. 가부장적 전통아래의 헝가리에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아바카노비치의 자매들은 가계를 잇지 못하는 좌절스럽고 무기력한 성이었던 것이다. 아바카노비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괴로워했으며 자신의 성(性, gender)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체에서 성의 부분은 아바카노비치의 경우 거세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자리한다.

[s] 집단E는 작가가 직조하는 과정에서 짜지않고 비워둔 여백의 공간이다. y_b 는 $y_{b1, 2, 3, 4, 5, 6, 7, 8, 9}$ 의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y_b, y_a, y_c 는 삼각형의 시행로로서 연결(conjunction)관계에 있다. 동시에 y_a, b, c 는 짜여진 구조물과 의미적 대조를 이루면서 이접(disjunction)되어 있다.

[k] 집단T는 부드러운 솜털구조로서 짜여짐의 세계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로서 섬유물성의 유연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꽃의 일반구조에서 암, 수술대 혹은 꽃가루, 여성 생식기의 음모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라 할 것인데 이는 작품 전면에 소산되어 있는 $x_e, x_f, y_e, y_f, y_i, y_j$ 등과 함께 연결관계에 있다. 또한 y_g, y_h 의 거칠은 표면 질감의 대조 측면에서 그리고 풀어헤친(non weave)조직과 짜여진 조직구조, 결합구조(y_d)과 비결합 구조의 이접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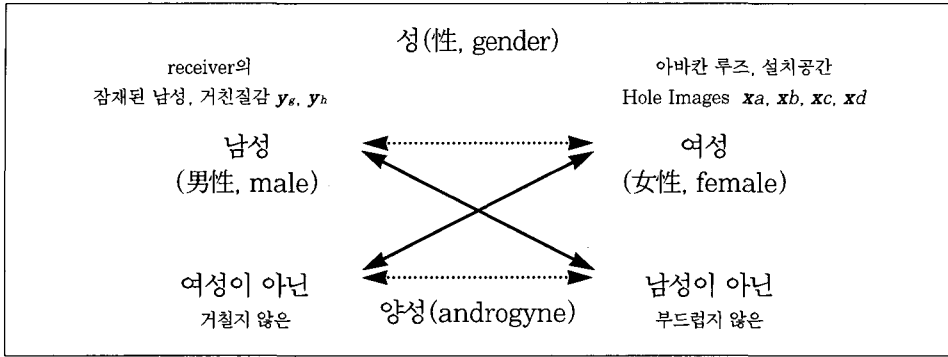
[b] 집단L은 짜임의 형태가 비교적 거칠은 부분으로 y_g 와 y_h area는 서로 연결하고 촉각적 재질감(Tactile Texture)면에서 상호 이접관계에 있다.



〈그림 6〉 아바칸루즈(Abakan Rouge, 1696)의 지배점 P

이 작품의 결합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배점 $P = \{x_a, x_b\} \cap \{x_c, x_d\}$ 는 아바카노비치의 작품세계에서 제 4기에 이르러 구체화되는 성의 중성화 경향적 표현으로 해독된다. 이 부분은 서로 연결된 고리의 형태구조를 구축하면서 작품의 내적 긴장을 정점에 위치 고정시키고 있다. 제 4기 아바칸은 남녀양성(Androgyné)의 모습, 중복과 이중의 임신의 이미지, 인간을 넘어 동물의 상들, 그리고 아바카노비치 자신과 익명의 초상들로 구체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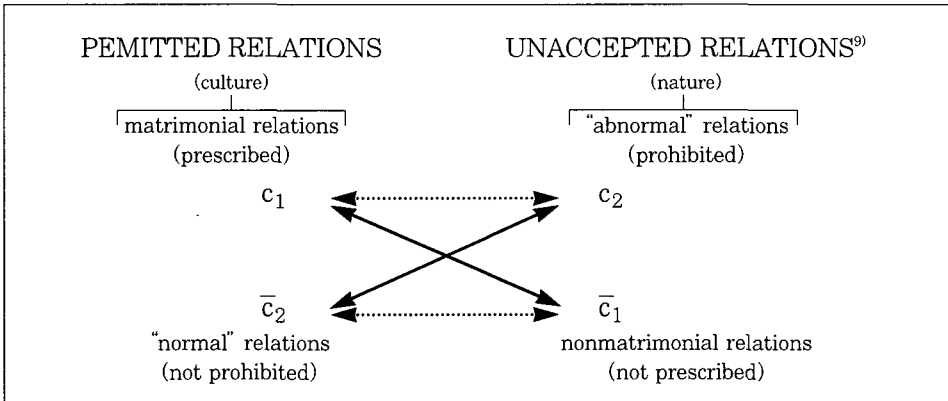
여기서 성(性, gender)에 관한 기호학적 구조의미망은 다음과 같다.



〈표 2〉 성(性, gender)의 구조의미망

양성 (androgyne)을 비성(非性)에 위치시켜 성의 대립항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내포된다. 현대 사회 경향은 전통 기독교적 가치관을 넘어 제 3의 성으로 수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문명과 자연계의 금지되고 규정된 관계 기술은 다음과 같이 가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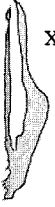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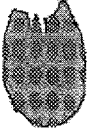









〈표 3〉 문명과 자연계의 금지되고 규정된 관계

note: In traditional French society, for example, we have the following equivalences

- | | |
|--------------------------------------|-----------------------|
| $c_1 \simeq$ conjugal love | 부부간의 사랑, 부부애, 혼인상의 사랑 |
| $c_2 \simeq$ incest, homosexuality | 근친상간, 동성애 |
| $\bar{c}_2 \simeq$ adultery by man | 남성에 의한 간통 |
| $\bar{c}_1 \simeq$ adultery by woman | 여성애 의한 간통 |

5-2 이미지개체정향과 의미치 (Image Individual Constant : d,s,k,b and Semantic Value)

	d Xa, Xb, Xc, Xd [d]	s ya, yb, yc, [d]	k (Xe, Xf, Y2, ye, yf, yi, yj) [k]	b yg, yh [b]		
[d]					집단P(4개의 꽃잎구조) · tetraretalous structure · couple form · 3선 (외엽, 중엽, 내엽)구조	이 접
[s]	1234 5 6789 			집단E (여백구조 : 餘白構造) · unfilled space group - blank space group		
[k]					집단T (부드러운 보푸라기, 솜털구조) · soft, tender nap group · 연접	이 접
[b]			집단L (짜임이 거칠은, 표면 조직이 거칠은 집단) · loose fabric group · harsh cloth · 연접			

<표 4> 이미지 개체정향과 의미치

주9) A. J. Greimas, *On Meaning Selected Writings in Semiotic Theory*,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Vol.38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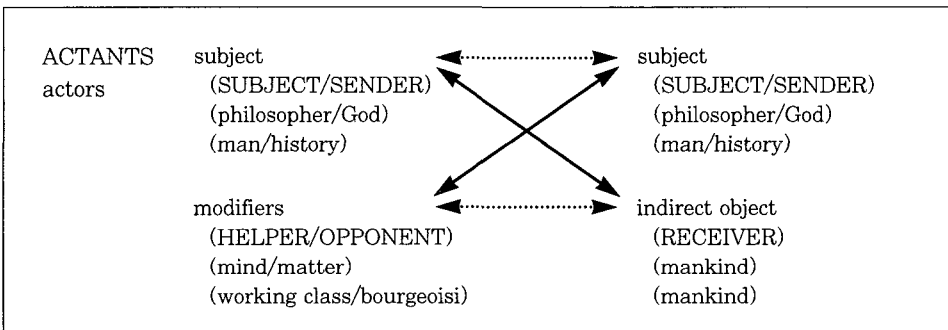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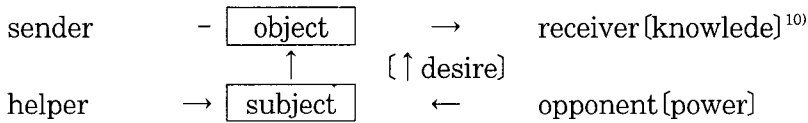
5-3. 계열과 결합

작품분석상 필수적인 계열을 추출하면

- 가. 3개의 타원형 화염구조계열 : 축소 VS 확대
- 나. 2지점의 분립적 소통구조계열 : 차단 VS 소통
- 다. 거칠은 재질감과 견고한 조직구축 계열
- 라. 부드러운 재질감과 유연한 조직해체 계열
- 마. 주 형태와 보조형태등으로 계열과 결합을 분화해 볼 수 있다.

아바칸루즈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의미요소는 인간 혹은 인간의 신체이며 여기서 여성신체의 일부분으로 등장하여 신>자연>인간>여성>생식기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신과 인간 혹은 작가와 관객의 관계의미는 다음과 같이 도식가능하며, 기호행위의 기본구조파악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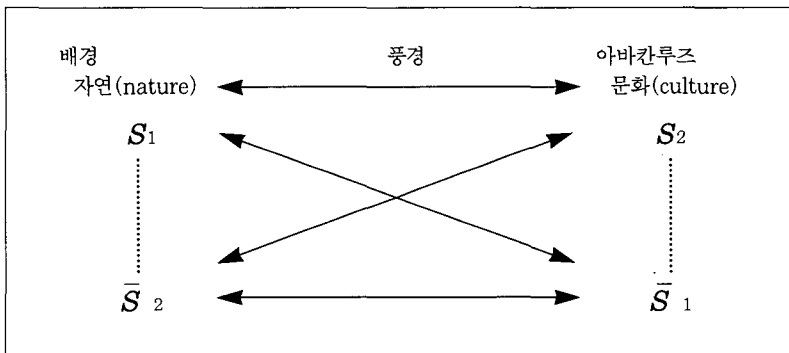
〈표 5〉 신과 인간 혹은 작가와 관객의 관계의미망

이제 이 단계에서 기술된 이미지들의 시차들(示差들, differences)을 파악하여 대립구조항을 정리해 보면

주10) Ronald Schrifler, Introduction, A.J. Greimas, Strutira / *Sementics, An attempt at a method*(Lincoln and London : Universty of Nebraska Press, 1984),1984. P. Introduction xliii.

- a) 직조방식으로 구축된 부분 VS 비직조(non woven)여백부분
- b) 거칠은 표면구조 VS 부드러운 표면
- c) 관계조직화 VS 관계 해체화
- d) 자연 VS 문화
- e) 여성성 VS 남성성

과 같이 연속화면을 분절해 낼 수 있다. 분절은 ‘관계의 설정’인 동시에 이접(離接, disjonction)과 대립을 변별해낸다는 의미이다. 기술된 형상의 구조의미망을 추출해내는 과정은 앞서 일부 수행하였고 본고에서는 이미지의 위치구조 서술의 합리성 문제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으므로 자연과 문화의 구조의 미망을 진술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후속 과제화 한다.



〈표 6〉 자연과 문화의 구조 의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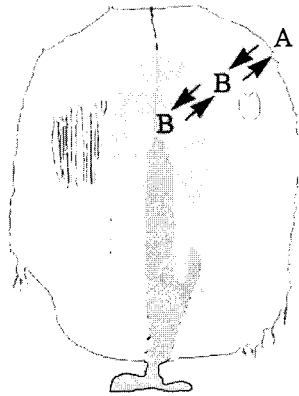
5-3-1. 계열들의 결합방식

x(수평) y(수직)	좌	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드럽고 거친 재질감의 대비 · 아홉 개의 길게 뚫린 구조와 · 새로운 반원형 직물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원형의 뚫린 형태 · 좌상단 반원형과 쌍을 이루는 구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뚫림과 막힘의 대비구조 · 부드러움과 거칠음의 질감대비 · 다층구조의 등장과 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의 지배구조충위 · 다층적 연결고리 구조 · 심화된 상징성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양/요철/돌출과 함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드럽고 미세함. 상황가속 · 흘러내리는 진행의 마감 이미지 · 핵심구조체의 종결적 완성태

〈표 7〉 계열들의 결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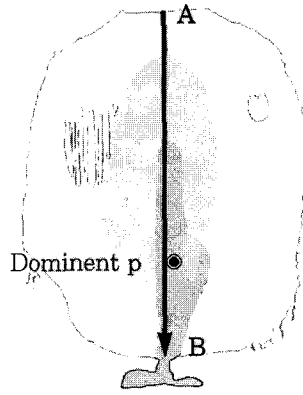
5-3-2. 결합에 있어서 시선의 행로 (passage)

① A ⇄ B ⇄ C 시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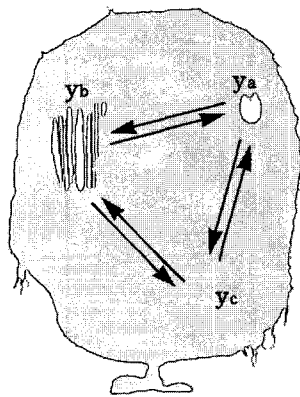
$Y1 \rightleftharpoons xa, xb \rightleftharpoons xc, xd \rightleftharpoons yd (p)$

③ 수직적 시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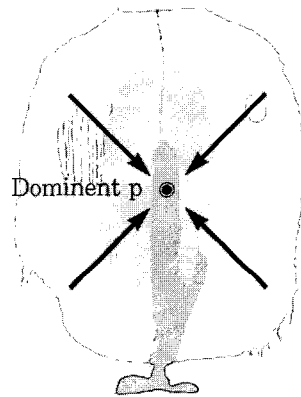
$A \rightleftharpoons P \rightleftharpoons B$

② 여백구조의 3지점 시행로



$yb \rightleftharpoons ya \rightleftharpoons yc$

④ 집중적 시행로 (1축점 응시적)



밖 ⇄ 안

IV. 결론

아바카노비치는 현대 섬유미술분야에 있어서 이른바 후기시대를 특정지우는 대표작가군의 일원으로서의 고정된 지위를 확보하는데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잠재적 평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선행연구들의 정황적 근거는 직관적 정서연구에 의존하거나 형식주의적 형태구조의 의미분석 혹은 심리학적 창작 작용인(causa efficiens)의 탐구수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

〈아바칸 루즈, 1969〉의 기본구조는 비조성 이산구조로 잠정 결론 내렸으나 좌우 대칭구조는 유사하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일성 구조로 파악할 것인가 혹은 차이성 구조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혼합형 구조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판단을 유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함의 노정이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해체적이고 파편화되는 경향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전환적 작업시기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시 텍스트〈아바칸 루즈, 1969〉의 구조적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해온 조형분석 및 검증의 제절차를 통하여 시공간의 체제화(Organization)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본연구의 성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텍스트 아바칸루즈에 존재하는 계열현상(系列現象, Paradigmatic appearances)과 결합현상(結合現象, Syntagmatic appearances)을 차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조의미에 구체적으로 접근 할 수 있었거니와 특히 이 작품의 결합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배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 지배점의 함의성은 아바카노비치의 작품세계에서 제4기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성의 중성화 경향에 대한 복선적 표현으로 해독된다. 양자가 서로 엮히면서 연결된 고리형태 구조는 작품의 내적 긴장을 정점에 위치고정 시키면서 극명한 담화를 발화하고 있다. 남녀 양성의 모습, 중복과 이중의미등 복잡계 생산구조의 시스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 밖에 〈아바칸루즈〉의 작품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아바칸의 알레고리를 통하여, 아바카노비치는 자신의 선조로부터의 정체성을 추적하는 신 유목민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고
2. 아바카노비치의 신체관련 텍스트는 근자에 이르러 몸학의 체제화 경향에 투사하여 재해석 연구의 가능성 소여가 있다는 점이며
3. 중성인간과 완전한 성의 제문제는 포스트 모던신학과 관련하여 성 담론의 카테고리 내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후속과제를 등장시킬 수 있었음이 또한 부차적으로 도출된 성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복영, 「P-언어와 분석기표학」,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예술학과 하계강좌자료 2004(미간행).
- 김복영, 박병주, 홍지석, 「새 햄비지 언어 (*New Hambidgean Languages for Description of Rectangular Paradigms*)」,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2003(미간행).
- 김복영, 「시각기표의 분석처리: P-언어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미술학과, 2004(미간행).
- 「시(視) 공간의 통사의 미론을 위한 위치수열 2차원 일반 Δ - TABLE의 구성」, 조형예술학 연구, 제2호, 2000.
- 「회화적 표상에 있어서 기호와 행위의 접근 가능성과 회화적 가능세계의 의미론」,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집 제24집. 1990.
- 「통사수열기법: 시공간 - 수열표의 작성과 독해」,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미술학과 동계연수자료. 2000(미간행).
- A.J. Greimas. *On Meaning: Selected Writings in Semiotic Theory*.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Volume 38.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 *Structural Semantics : An Attempt at a Method*,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4.
- Brenson, Michael, *Magdalena Abakanowicz's "Abakans"*. Art Journal. vol. 54. spring 1995.
- Magdalena Abakanowicz,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Abbeville Press, 1982.
- Mildred Constantine & Jack Lenor Larson, *beyond craft : the art fabric*, Van Nostrand Reinhold, 1973.
- Rose, Babara, *Magdalena Abakanowicz*,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94.
- Ulrich, Polly. *Beyond Touch : The Body as Perceptual Tool*, FIBERARTS. vol. 26. No.1. summer. 1999.

■ ABSTRACT

A. study on 〈Abakan rouge〉 of Magdalena
Abakanowicz

Ghim, Eon-Bae

(Professor, Dept. of Textile Design, College of Design, University of Ulsan.)

We are sure that Abakanowicz positively assumes a position of members, which are represented the later modern fabric design. In spite of his pervasive evaluation, we have doubt about his achievement because the preceding research is insufficient about arguments such as dependence on intuitive emotion study, conventional analysis of structure and insufficient inquiry of *causa efficiens*.

We agree that basic structure of 〈Abakan rouge〉 is dissipation. Though right and left symmetrical structure is similar, also that structure is different. We can't decide whether structure is unification structure, difference structure or mixture structure. We think that the time of confusing argument of his structure is changing period for disorganization trend. The result of this study confirm the research possibility about space organization with restructure analysis and verification for examining essence structure of sample text 〈Abakan rouge〉. The Thesis are concern that the different between paradigmatic appearances and syntagmatic, which exist 〈Abakan rouge〉. So, we can approach the meaning of system and find dominant point about constructional relationship on the works. The meaning of dominant point is understood about sexless trend or Androgyne, which are appeared Abakanowicz forth work period. The relationship structure which is mixed both issue show that inner issue of work is located the highest position. The paper presents confusing manufacture system,

which are suggested man-woman sex and mixed meaning.

The other result of this study are,

1. being known as Abakan algorism, Abakanowicz has new drafting idiom from his ancient belief.
2. we need to research the body texture of Abakanowicz with the trend of restructure of body study.
3. we need argue about gender study in relative with poster moderntheology related problem of sexlessness people and perfect sex-people.

연속구조의 조성(調性 Key)표

(b)*	(r ⁻¹)	(c ⁻¹)	(μ ⁻¹)
$\sqrt{\sqrt{\phi}}$	0.9416	0.0584	0.1100
$\sqrt{\sqrt{3}}$	0.9170	0.0830	0.1522
$\sqrt{\sqrt{\phi}}$	0.8567	0.1133	0.2010
$\sqrt{\sqrt{2}}$	0.8403	0.1591	0.2676
$\sqrt{\phi}$	0.7862	0.2138	0.3362
$\sqrt{2}$	0.7071	0.2929	0.4142
ϕ	0.6180	0.3820	0.4722
$\sqrt{3}$	0.5773	0.4227	0.4880
$\sqrt{4}$	0.5000	0.5000	0.5000
$\sqrt{5}$	0.4472	0.5628	0.4944
$\sqrt{6}$	0.4082	0.5918	0.4831
$\sqrt{7}$	0.3780	0.5220	0.4702
$\sqrt{8}$	0.3535	0.6465	0.4571
$\sqrt{9}$	0.3333	0.6667	0.4444
$\sqrt{10}$	0.3162	0.6368	0.4324
$\sqrt{11}$	0.3015	0.6985	0.4212
$\sqrt{12}$	0.2887	0.7113	0.4117
$\sqrt{13}$	0.2774	0.7226	0.4009
$\sqrt{14}$	0.2673	0.7327	0.3917
$\sqrt{15}$	0.2582	0.7418	0.3830
$\sqrt{16}$	0.2500	0.7500	0.3750
$\sqrt{17}$	0.2425	0.7575	0.3674
$\sqrt{18}$	0.2357	0.7643	0.3503
$\sqrt{19}$	0.2294	0.7706	0.3536
$\sqrt{20}$	0.2236	0.7764	0.3472

r^{-1} = reciprocal = $\frac{1}{b}$, c^{-1} = complement = $1 - r^{-1}$
 μ^{-1} = mean, 중항 = $2r^{-1}c^{-1} = r^{-1}c^{-1} / (r^{-1} + c^{-1}) / 2$

※ b는 연속수열의 집합, {a, b, c}의 중간항,
 연속비의 관계식 $a/b = b/c$ 에서 $c = a + b$ 이면 $b^2 = ac$,
 $b^2 = \sqrt{ac}$ 이고, $a = 1$ 이라 하면, b는 항상 무리수 이다

ex. $c = 2 \rightarrow b = \sqrt{2}$
 $c = 3 \rightarrow b = \sqrt{3}$
 \vdots
 $c = \phi \rightarrow b = \sqrt{\phi}$
 $c = \sqrt{\phi} \rightarrow b = \sqrt{\sqrt{\phi}}$
 \vdots
 $c = \sqrt{2} \rightarrow b = \sqrt{\sqrt{2}}$

단, ϕ 의 경우는 연속수열의 집합에서 $a = \phi^{-1}$, $b = 1$
 $c = a + 1 = \phi^{-1} + 1$ 로 해야 연속수열이 될 수 있다.
 즉 $\phi^{-1} / 1 = 1 / \phi^{-1} + 1$